

집중 호우 뒤 세심한 축사 소독·가축 관리로 질병 예방

- 축사 안팎 철저한 소독으로 외부 병원성 미생물 유입 차단
- 깨끗한 물, 품질 좋은 사료, 비타민 등 보충해 가축 면역력 높여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집중 호우 뒤 축사 방역과 가축 관리 요령을 소개하며, 가축 질병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하고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을 모두 씻은 후 꼼꼼하게 소독한다.

소독제는 미리 희석해 두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필요한 만큼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때 동봉된 설명서를 꼭 자세히 읽고 용도와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과 대인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하고, 축사 외부 울타리 상태도 점검 후 복구한다. 야생 조류와 멧돼지 침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축사 주변 물웅덩이를 메워 해충 발생을 막는다.

축사 환경이 비 피해로 열악해지면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가축 상태를 유심히 살핀다. 특히 침수된 축사에서는 탄저, 기종저, 보툴리즘 같은 토양 유래 질병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가축 소독을 할 때는 이물질이 떨어져나고 적정 소독제를 희석해 분무기로 뿌려 준다. 가축은 질병 초기에 사료 먹는 양과 움직임이 적어진다. 특히 체온*, 호흡 이상 여부, 코와 입 주변의 침과 수포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어미돼지 폐사, 소 피부 결절 등 가축 전염병이 의심되면, 가축 방역 기관(1588-4060)에 신고해 방역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정상체온(도): 소(38~39), 돼지(39), 가금(41.7)

자급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장은 초지,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점검한다. 침수된 사료는 곰팡이 발생, 이상발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급여하지 않는다. 농후사료와 풀사료는 물이 닿지 않도록 건조하게 보관하고, 변질 또는 부패하지 않는지 살핀다.

축사 안으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옮기거나 송풍팬을 틀어 습도를 낮춘다. 마른 깔짚을 충분히 깔아 바닥이 축축하지 않게 관리하고, 사육 밀도를 낮춰 가축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기온이 떨어진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좋은 품질의 농후사료와 풀사료를 조금씩 자주 먹이고,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해 주는 게 좋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물통을 자주 청소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집중 호우로 열악해진 축사 환경은 가축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축사 소독과 세심한 가축 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집중호우 전·후 축산농장 이렇게 관리하세요’ 안내서

담당 부서 <총괄>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진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윤주영 (063-238-7203)
<공동>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책임자	과 장	강석진 (063-238-7220)
		담당자	연구관	정영훈 (063-238-7221)



사전 예방

1. 축사 내외부 침수 정수 장치 점검
 - 축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정비합니다.
2.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 실시
 - 피압이나 피로 인한 누전 등 사전예방으로 축사 화재를 예방해 주세요.
3.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기기
 -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기기

사후 관리

가축사료관리

- 좋은 품질의 농부사료와 통사료를 조금씩 자주 먹이기
 -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먹이를 주세요.
- 비타면,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해 주기
 - 신선한 물을 함께 먹여 주세요.
- 농부사료와 통사료는 건조하게 보관
 - 곰팡이로 인한 연실과 부패는 없는지 자주 살펴주세요.

사육환경관리

- 축사 안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주변 장애물 옮기기
 - 송풍팬을 돌려 습도를 낮춰주세요. — 적정습도 40~70%
-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짚 깔기
 - 젖은 깔짚을 교체해 주고 바닥은 물이 차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 사육밀도를 낮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줄여주기
 - 기존 사육 밀도보다 대지는 90%수준, 낮은 대지는 80%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기
 - 수질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교체하게 청소해 주세요.

생적 및 소독

- 축사 내외부 침수 정수의 물을 배변 후 유기물과 토사 등을 깨끗하게 제거
-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
 - 축사구역을 사포통, 물수통 등 모두 세척하고 곰팡이 소독해 주세요.
- 소독제는 알칼리성 제제와 산성 제제 함께 사용 금지
 - 이온은 사용하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해주세요.
 - 옥시산 산성제는 보관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독제에 동원된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용도 및 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http://medicag.go.kr>)를 참고해 주세요.

시설점검 및 보완

- 자양 및 대인 소독시설 정상가동 여부확인
- 축사 외부 물타기 파손 여부 점검 후 복구하기
 - 축사 내 구멍, 새우가치 파손을 통해 야생 조수로, 야생 및 야생새까지 침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차단해 주세요.
- 해충발생 방지를 위한 돌출물이 매수기
 - 후사우선 운동장, 초지, 사료로 등의 매수선을 점검하고 철조 등을 제거해 주세요.
- 축사 주변 잡초 제거하기
 -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가축질병 모니터링

- 농장 수해 복구 후 가축 건강 상태 살펴보기
 - 사료, 음수, 축사 환경이 모듬과 함께야 면역력 약화로 소화가 및 호흡기 질환이 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 가축 소독 방법
 - 가축 앞에서 이동장을 떨어진 뒤 알칼리성 소독제를 적당 농도로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려 소독하고, 이후 1~2주동안 건물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세요.
- 가축 행동 및 증상 관찰로 가축질병 조기 발견 필요
 - 질병 초기에 서로 아는 양의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개체에서 체온, 호흡, 코와 입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 구별 등을 손으로 만지기(거친), 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 상승을 확인해 주세요.

수강생 질병(위중상 질환 등) 발생예외는 행사 등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찰해 주세요.

질병 증상을 예방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영양비타민과 비타민, 마약물 등을 추가 급여해 주세요.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방역관리 차시(제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고전화: 1588-4060**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Tel: 063.238.0987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Tel: 063.238.7293